

월요광장



이 상 먼  
광주대 교수

#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희망이다

다. 지역의 자립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바로 대안이다. 지역 생산품은 로컬푸드 운동처럼 급격히 지역에서 유통·소비되고, 분해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 생태계의 순환성이 유지되고 부의 유출도 줄일 수 있다.

노동력의 유출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노동력이 바로 지역경제 담당 주체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은 생산요소지만, 지역경제가 생산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생산·소비·분해의 순환 속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면, 노동력의 의미는 생산·소비·분해의 주체 즉 생활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력은 생활현장에서 떨어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외국인 근로자, 지방 단산 부임 등 상품화된 노동의 효율성 이면에는 그들의 황폐화된 생활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가급적 외부 상품화된 노동력보다는 지역 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아울러 자체 노동력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지역산업을 활발히 육성해야 한다. 또 외부에서 유입된 노동력은 지역이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외지에서 출근하면서 생산자 역할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슬로건 '자유·평등·박애'의 경제학적 의미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는 시장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면

고, 평등을 실현하는 계획시스템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시도되었다. 앞으로는 박애를 실현하는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전개될 차례이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맹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몰락 이후 확산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발전, 유럽대륙·캐나다 등의 협동조합 성공 사례 등이 바로 그 주역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의 주도 아래 사회적경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미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외에 정치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가 핵심정책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 주체 및 주민들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충남은 2012년에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강원도도 2013년에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광역시도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남도 역시 2014년 9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주민들과 생활현장을 같이 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충

남 서천군은 2013년에 지역순환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1번지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지자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완주군이 2010년 설립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많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

시장시스템에서는 민간기업이, 계획경제에서는 공권력이 경제 주체로서 효율적으로 각 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는 시장, 계획,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공존과 융합 그리고 역동적 조화 속에,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국가보다는 지역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주민복지 증대를 통해 생명가치를 회복하고, 민초들의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지역화 실현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되는 지역제품 사랑, 이웃 사랑은 결코 편협한 지역감정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삶의 지역화를 통한 화해와 연대의 공동체적 철학, 참여민주주의 원리 등에 입각하여 사회를 변혁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법조칼럼



엄 재 상  
광주지검 검사

# '민주 도시 광주' 부정선거 이제 그만

그러나 광주에서 생활한 지난 8개월은 단순히 세월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추억과 일들로 일상이 단단하게 채워졌던 것 같다. 특히 필자는 걷는 것을 좋아하여 출퇴근을 걸어서 하다 보니 지산동과 두암동의 골목과 거리를 많이 보았고, 요즘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과거의 멋과 풍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무실로 들어오면 많은 사건 기록이 필자의 앞에 있고, 수사관들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느라 검사실은 그야말로 시끌벅적 시장통 같다. 이따저 가을의 정취는 깨지고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선거사건의 엄청난 무거움만 절실히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급속도로 성취해 낸 자랑스러운 국가다. 특히 이곳에 있는 5·18 역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묻어 있는 몸부림의 흔적이다. 또한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한 많은 분들 중에 광주·전남 출신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지도 모른다.

많은 민주주의 투사와 선배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돈 선거, 조직선거, 관공개입 등 부정선거를 자행

하는 독재세력과 분열이 일어나 싸웠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일구어 내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광주, 전남지역의 선거범죄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인 광주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놀란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개입으로 전국 최초로 공무원이 구속되었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당비 대납을 통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지역도 유감스럽게 우리 지역이다.

2010년도 지방선거 때는 선거범죄 수가 전국 1, 2위를 다투는 정도였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압도적 1위라는 점을 볼 때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 아마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이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 관대히 대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만연한 지역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

로 치러야 하는데 이를 감내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선거브로커들에게 농락당하게 되어 당선인 이후에도 선거브로커들이 시청이나 도청 등을 감시하게 된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선자들은 시와 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지역의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광주와 전남은 빠른 걷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부정 선거를 지르려는 후보자들과 그 곳에서 기생하는 선거브로커들을 일소해야한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들을 선택해야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비결이다.

빛고를 광주! 남도 특유의 소박한 기질로 자연과 풍류를 즐김 줄 알았던 뿌리 깊은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자,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같은 국난이 닥칠 때마다 특유의 '광주 정신'으로 애국충절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의향이기도 하다. 그런 광주·전남이 앞으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대한민국을 선도하기를 바란다.

기고

# 등산과 지자체 재정력 확보의 공통점은



윤 인 휴  
전남도 부이사관

어 대화하면서 등산하기가 좋다. 하동군 북천면 봉명산(408m)은 숲이 잘 조성돼 가족, 동료들과 같이 천천히 등산하기 좋고 다슬기사는 절도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작고 낮은 산도 정상에 이를 때 서두르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다. 가끔 산악사고를 보면 하산하면서 실족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버거운 무리한 산행을 했거나 코스를 모르고 그냥 간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후배와 등산을 갔는데 그는 거친 호흡을 내쉬며 힘들어 했다. 아마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녁 회식과 모임이 많아 생긴 술배(?)가 원인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일행도 낙오할 정도로 뒤쳐진 것을 보고 다음에 지리산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마주 보고 웃었다. 동네 산도 오르기가 벅찬데 2000m가 다 되는 지리산 천왕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 제일 가까운 무등산 증봉 정복부터 하려고 방향을 틀었다. 그렇다. 동네 산부터 잘 타게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산행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더 높고 유명한 산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높은 산은 물론 낮은 산

도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또한 비슷하다. 전국에서 제1이 되고, 세계로 우뚝 서고 싶다면 기초체력과 힘을 길러야만 한다. 얼마 전 부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의 재정경쟁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리는 근본 대책은 법률 개정과 제도적 뒷받침 마련인데 이는 국회나 정부의 의지와 힘을 빌려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즉 가까운 산부터 잘 오를 수 있는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몇가지만 들면 첫째,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늘려 사업자들로부터 세수를 더 걷는 것이다. 가공산업 등 산업특화를 비롯해 마을 체험장, 강변 수상스키, 캠핑장, 휴양시설 조성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친환경·IT·의료·교육·융합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소규모 기업의 규모화 및 법인화, 내수기업의 수출기회확화 지원, 중소기업청-무역협회-코

트라-세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나아가 세출예산 집행에도 다양한 절감방안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공법의 성능, 안전성 평가) 방법을 도입하면 효과적이다.

우리는 지금 민선시대 6기를 맞이하고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 그런데도 취약한 재정력 때문에 힘들어 하는 지자체가 많다. 훌륭한 청사진(Project)도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큰 산을 올려떠낸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체력을 보강하고 준비를 갖추고 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1박, 2박할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몸과 실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뒤여러야 천왕봉이고, 에베레스트가 목표가 되지 않을까?

社 說

# 한빛원전 총체적 부실, 오류에 은폐까지

영광 한빛원전이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운전 메뉴얼' 상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유출된 방사능 성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유출량도 집계하지 않아 추가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3호기가 돌던 가동 정지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운전절차서 오류 가능성이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준 한빛원전본부장은 "비상운전 절차서 대로 명령을 수행했는데도 원전이 갑자기 멈춰 섰다"며 "절차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절차서 오류로 판명이 되면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계발, 주민복지 증대를 통해 생명가치를 회복하고, 민초들의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지역화 실현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 나주고분 유물 지역 고대사 연구 전기로

나주 복암리 고분과 인접한 정촌고분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백제 금동신발이 발굴됐다. 또 마한·백제의 특징이라는 돌방무덤 형태의 이 고분에서는 금제 귀걸이와 금제 장신구, 마구(馬具) 등 귀중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지역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향후 고고학적 연구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돌방 무덤 3기의 내부 조사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 중 1호 무덤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됐으며 이 무덤의 규모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마한·백제권 초기 대형 돌방무덤 가운데는 가장 크다고 밝혔다.

출토된 금동신발은 용 모양 장식과 연꽃·도깨비 문양의 투조·선각으로 당시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 국보급 유물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무령왕릉을 비롯해 고탕 봉덕리, 광주 수촌리, 고흥 안동 고분 등지에서 금동신발이 발견

되지만, 거의 훼손되거나 손상된 채 수습된 게 대부분이어서 이번처럼 완벽한 형태의 출토 또한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번에 출토된 유물이 갖는 의미는 크다. 백제 초기사는 물론 마한의 실제, 가야·신라와의 교류, 또 고분군이 조성된 나주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호족-왕족 간 관계까지色々 파즐을 풀어내는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 지역 고대사는 부족한 사료와 유물들로 역사학계의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 일으켜왔다. 더욱이 기존 역사학계 주류와 재야사학자들이 내놓는 주장 또한 그 괴리가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출토 유물들의 고고학적 분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역사학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출토된 유물의 보존 대책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료를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두 명의 미국 우주인이 지구궤도를 도는 ISS(국제 우주정거장) 바깥에서 물품교환을 위해 우주유영을 하고 있었다. 영화 '그레비티'에서 묘사된 것처럼 우주방사선은 노출되고 작은 파편 한 조각에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미션이다.

7시간30분에 걸친 작업도중 한 우주인이 나론 D4Xs로 작업에 열중하는 동료를 찍었다. 하얀 우주복을 입고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 이 사진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주인(Mike Hopkins)의 헬멧 유선인 그의 얼굴 대신 거울처럼 ISS 구조물이 반영돼 있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는 그의 사진을 2013년 '베스트 셀카'로 선정했다. '셀카'는 셀프 카메라를 줄인 말로, 영어로는 '셀피'(selfie)라고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사진은 '셀카'는 아니었다. '셀카'는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사진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찍는 사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필름카메라 시절, 셀카를 찍으려면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향해 들고 꼭거나 삼각대 위에 올려 카메라 몸체에 달린 셀프 타이머를 작동시킨 후 '워치'로 재빨리 달려가야 했다. 대략 10초 후에 찍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카메라를 세팅하는 거지 되돌아오는 도중 엉덩이가 찍히기도 했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은 셀카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요즘엔 셀카를 쉽게 찍을 수 있도록 돕는 기구인 '셀카봉'(棒) 인기가 뜨겁다.

기존에 스마트폰을 손에 든채 내밀어 찍다 보면 얼굴이 좁아 아쉬웠는데 셀카봉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했다. 팔걸이 만능의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고정하면 혼자서 나 여러 명의 셀카촬영이 수월해진다.

가을풍경이 좋은 곳에 다니다 보면 셀카봉을 들고 찍는 청춘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이런 셀카봉을 이용해 셀카에 열중하는 이들을 가리켜 '호모 막대기쿠스'라고 부를까.

일가를 쓰듯 일상 속의 자신의 모습을 알리기 위한 셀카 문화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자못 궁금하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p>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4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인명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p>	<p>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p>	<p>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